

월요논단



김영호 중앙대학교 교수·한국박물관학회 회장

문명 전환기,空에 길을 묻다

적 전환기'로 고쳐 부르고 있다. 새로운 변화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야기한 팬데믹이다. 전 지구적인 재앙 상황은 각국에 세계관의 변화,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어선 나라, 고난한 민중 항쟁을 거치며 정치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다. 하지만 OECD 최고의 자살률과 산업재해 사망률, 역대 최고의 저출산율과 참담한 청년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국가의 지표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경쟁과 성과주의가 야기한 '피로 사회'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리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문명사적 전환기에 대응하려는 지식인들의 노력에는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없다.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을 지닌 선택하는 '신생활운동'과 새로

운 세상을 위한 생태계 실천 운동인 '녹색운동'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술의 영역에서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 치열하게 성찰하는 작품들과 전시회들이 대세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근대의 경쟁과 성과주의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공통분모로 삼고 있다. 이른바 기계론적이고 분석적이며 사변적이고 물질적인 문화가 쇠망해 가고, 시스템적이고 종합적이며 직관적이고 정신적인 특성의 문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이 모든 문화현상을 품으며 떠오르는 대안이 불교의 공(空) 철학이다. 공은 대승불교의 기본 개념이자 반야심경의 중심 개념으로 근대의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상이다. 불교학자 서정형은 공을 '지혜의 눈으로 보는 세상의 참모습'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공'이라는 그물코를 잡아당기면 무아(無我)

와 무상(無常)과 연기(緣起)와 열반(涅槃)과 마음이라는 그물코가 모두 끌려온다'고 역설하고 있다.

공은 허무가 아닌 자유를 지향한다. 서정형의 말처럼 공하다는 것은 자성(自性), 즉 사물 자체의 본성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자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변하며 독립자존 하지 않아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 변한다면 그것은 공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고, 인연이 화합되어 존재한다면 그것도 공하다고 말해야 한다.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사물은 공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고, 좌절할 일도 없다는 것이다.

문명사적 전환기로 불리는 작금의 인생 노정에 공 철학이 대세로 다가오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눈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

사설

제2공항 후폭풍 만만찮아 우려스럽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발표하면서 도민사회가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지방정부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제2공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2공항 추진 의견을 밝힌 원 지사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좌 의장은 지난 11일 고영권 정부부지사를 의장실로 불러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 발표에 대해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은 원 지사 사퇴까지 주장하면서 의회와 도정의 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반대 도민 결정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원 지사의 입장을 두둔하는 찬성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와 성

삼읍청년회합동포럼은 11일 성명을 내고 "원 지사의 제2공항 사업 강행 의견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범도민추진협의회와 제주지역경제단체협의회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책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기대한다"고 거듭었다.

심히 걱정된다. 제2공항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도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해 해소를 위해 어렵게 이뤄졌다. 때문에 제2공항 여론조사가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좌 의장도 지난달 여론조사를 앞둔 "도민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갈등 해소를 위해 여론조사의 취지가 묻어갔다. 여론조사가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국토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이처럼 도민사회가 극심한 갈등에 휩싸이고 있어 큰 일이다.

감귤 통합브랜드 외면, 이럴 수 있나

감귤의 통합브랜드 '굴로장생'이 출시 6년에도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각 지역농협이 자체 브랜드 사용을 고수하고, 사실상 농협 주도로 탄생한 통합브랜드를 기피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감귤 경쟁력이 날로 추락하는 현실에서 통합브랜드 활성화에 '암초'를 만난 격이라 큰 문제다.

'굴로장생'은 지난 2015년 제주농협 주도로 각 조합에 40여개로 난립한 개별브랜드 사용 혼란을 막고, 통합마케팅을 위해 만들어졌다. 연구용역과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탄생한 '굴로장생'은 비파괴산별기를 거친 감귤을 등급별로 3가지(명품·프리미엄·일반)로 나눠 출하된다.

그러나 출시 6년째인데도 '굴로장생' 출하 물량이 예상외로 적다. 연도별 농협 계통출하 감귤 중 굴로장생 출하량은 2017년 17만 2650t 중 7892t, 2018년 19만 4220t 중 3만44t, 2019년 19만 2158t 중 1만5624t 등에 불과하

다. 농협이 굴로장생 출하 목표량까지 부여하며 실적관리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더 우려스럽다.

통합브랜드 기피는 산남지역 중심으로 오래 인지도를 쌓아온 일부 조합 자체브랜드가 도매시장서 더 호평을 받아서다. 통합브랜드 초기 3년간 조합 자체 브랜드를 병행 사용하고, 점차 굴로장생 브랜드로 유도한다는 구상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한 요인이다. 그간 굴로장생 브랜드 사용이 활성화됐다면 가격지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제주감귤 대표 통합브랜드까지 출시해 놓고 '유명무실'하도록 뒤쳐야 되겠는가.

최근 감귤값 폭락으로 위기를 맞는 상황에 통합브랜드 마케팅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는 현실을 중시해야 한다. 농협은 통합브랜드의 의무 사용, 기존 조합 브랜드 구조조정 등 브랜드 전반의 문제점 개선에 나서길 촉구한다.

뉴스-in

“도민 의견 수렴 합의문, 전체 합의문 아냐”

국민의힘 도의원들 책임 회피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특정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합의문의 무게를 축소.

이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의견 수렴 관련 합의문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적이 없고 민주당 특정 도의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도의회 전체의 합의문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

이에 대해 도의회 안팎에서는 "그럼 합의문 작성에 앞서 본회의 표결강행을 요구해야지 지금에 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고대로그 기자

공동주택 정비 사업 '치열'

○...제주시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사업'의 경쟁률이 '3.58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한 양상.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내·외도장 및 방수공사 등 노후된 공공시설의 보수를 위해 단지별 세대에 따라 사업비의 50~70%(최대 3500만원)를 지원.

접수 결과 공동주택 단지 86개소가 신청을 했고, '제주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4개 단지가 선정. 송은범기자

서귀포시 시정 홍보 활발

○...서귀포시가 지난달부터 각 실·국은 물론 읍면동별로 활발한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눈길. 시는 매일 실·국별로 기자실에 서 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은 물론 문화도시 2주년 시책 등 주요 사업과 첫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

이양문 부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서귀포 특색사업으로 서귀포형 뉴딜사업, 웰니스 관광, 서귀포in정 등에 대해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 강조. 백근탁기자

열린마당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하고 포상 받으세요



오성홍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시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 불법행위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서에 증명자료(현장 사진, 영상자료 등)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 신고한 사람(누구나 신고 가능)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은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자신의 안전은 단 1초의 관심만으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와 안전의식을 확산

최근 빈번한 대형화재의 발생으로 뉴스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만 들려도 도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화재는 필연적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예방이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뜨거운 열기와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고 경전이 동반된다면 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와 안전의식을 확산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고성씨 최순(향년 9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리며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15일
아들 고재호, 며느리 고지영, 한우용, 한소영, 주용, 고효경, 은용, 딸 한지연, 사위 김태업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의만(향년 8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리며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15일
부인 오길자, 고창용, 며느리 민동미, 아들 오창홍, 창홍, 김지혜, 딸 고영희, 사위 임동익, 영순, 장일권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방 조진수(1978. 8. 27생)
최후주소: 제주시 고마로13길 54, 가동 502호(일도이동)
상기자는 2020년 11월 2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3월 3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단1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제주시 고마로13길 54, 가동 502호(일도이동)
2021년 3월 1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조유빈, 조연수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귤요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방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사의 말씀
제주노형 로타리클럽 장공삼(향년 67세) 이사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리며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3월 15일
미망인 김신자, 아들 장지용, 사위 양지식, 딸 장미경, 혜경, 허원준, 회장 안석, 회원일동
국제로타리 3662지구 제주노형 로타리클럽 회장 안석 외 회원일동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방 조진수(1978. 8. 27생)
최후주소: 제주시 고마로13길 54, 가동 502호(일도이동)
상기자는 2020년 11월 2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3월 3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단1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제주시 고마로13길 54, 가동 502호(일도이동)
2021년 3월 1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송경욱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릉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IK약백도라지연구소